

AI시대, 살아남는 공부법

새로운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공부법



김강희 지음



조선의 공부법이 AI시대의 답이다.

글빛브레인

저자 소개

김강희

글빛브레인 출판사 대표

글빛브레인 교육센터 대표

2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뇌와 학습을 연구해 온 교육 실천가다. 독서와 언어, 그리고 뇌의 연결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적용해 왔다.

읽기, 말하기, 쓰기를 기반으로 한 학습 구조와 조선의 공부법이 현대 뇌과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실천해 왔다.

이 책은 오랜 시간의 현장 경험과 독서, 그리고 사유를 통해 축적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쓰였다. 공부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저서

『내 맘대로 나를 바꾸는 뇌 신경망 고속도로』

→ 뇌과학 기반으로 감정과 습관을 재설계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서

『쓰는 뇌는 늙지 않는다』 AI 활용 실전 책 쓰기 기본서

→ AI를 활용해 생각을 구조화하고,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실전 가이드

『글빛브레인 문해력』 수능 국어까지 연결되는 문해력 훈련 교재

→ 읽기·이해·표현을 연결해 초등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는 공부의 핵심 능력을
만드는 실전 교재

『트레이딩 브레인』 흔들리는 뇌에서 부자의 뇌로

→ 시장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다루는 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트레이딩 전략서

문의 및 강의 안내

이메일 hopekang99@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opekang99

유튜브 ggumkeykanghee(@꿈키강희)

전화 010-2506-5064

교육 상담 및 강의 문의는 위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AI시대, 살아남는 공부법

새로운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공부법



조선의 공부법이 AI시대의 답이다.

프롤로그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AI가 다 해주는데 왜 공부해야 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나는 그 순간 멈췄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AI는 글을 써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생각까지 대신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에게 말한다. 외워라, 풀어라, 반복해라.

이것이 맞는 교육일까?

나는 이 질문을 붙잡고 오랫동안 헤맸다.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답을 찾아 헤매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했다.

조선의 서당이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낭독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쓰는 것. 소리 내어 읽고, 훈장과 대화하고, 배운 것을 글로 써 내려가는 것. 조선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서당에서 하던 그 공부가, 지금 뇌과학이 증명하는 가장 깊은 학습의 방식이었다.

율곡 이이의 일목십행 一目十行, 一(한 일) 目(눈 목) 十(열 십) 行(줄 행).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해의 구조. 그것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속독의 원리와 정확히 같다. 택우문답 擇友問答, 擇(가릴 택) 友(벗 우) 問(물을 문) 答(답할 답). 벗을 가려 함께 묻고 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브루타보다 수백 년 앞선 우리의 것이었다. 아학편

의 선각자들이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했던 것. 그것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세계 최고의 파닉스 도구라는 증거였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다.

1910년 이후, 식민지 교육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생각하는 공부 대신 외우는 공부가 들어왔다. 소리로 체득하는 언어 교육 대신 문법을 외우는 방식이 들어왔다. 조선인이 한글로 외국어를 너무 쉽게 배우자, 일제는 한글을 말살했다. 그리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본식 영어 교육을 이식했다.

그 교육이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가 됐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도 수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라가 됐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생각하는 힘은 자라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안타깝게만 보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보라. K팝이 세계를 석권했다. K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다.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올랐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콘텐츠.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이 자리까지 온 민족이다.

이것이 우연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피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었다. 뇌를 골고루 활용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한번 체득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중력. 그것이 우리 민족이 타고난 것이다.

한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어떤 소리든 담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를. 그 문자를 가진 민족이 왜 다른 나라의 언어 교육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가? 한글로 세계의 모든 소리를 표기하고, 그 소리로 언어를 체득하면 된다. 우리에게 이미 세종대왕이 준 선물이 있다.

조선의 공부법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이 책은 새로운 공부법을 제안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자는 책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했던 공부, 세종대왕이 만든 도구, 우리 선조들이 실천했던 지혜가 지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부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나는 이 책이 부모들에게 달기를 바란다.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몰라 불안한 부모들에게.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육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일제강점기의 교육 잔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다. 우리 아이들이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교육을, 문법을 외우느라 언어가 싫어지는 교육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신 우리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리로 체득하는 언어, 낭독으로 기억하는 공부, 질문하고 토론하는 사고, 쓰면서 완성하는 이해. 조선의 서당에서 이미 이루어지던 그 공부가, AI 시대에 가장 강한 뇌를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 찾으면 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뇌가 더 넓어지고,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많이 노는 삶을 응원한다.

꽃이 피어나는 봄

김강희



목차

저자 소개

프롤로그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1부.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공부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

1장. AI 시대,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26

➡ 불안의 정체를 알면 방향이 보인다.

- "AI가 다 해주는데 왜 공부해야 해?"
- 아이보다 더 불안한 부모
- "우리 아이가 ADHD 같아요"
- 너무 잘 키운 아이들

2장. 외우는 공부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32

➔ 뇌가 진짜 원하는 공부가 따로 있다.

- 암기의 시대 → 검색의 시대 → AI의 시대
- 시험을 잘 보던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 뇌가 진짜 원하는 공부는 따로 있다.

3장. 나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었다.

37

➔ 이제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 평생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 수능 영어 만점, 그런데 말 한마디 못했다.
-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4장. AI는 무엇을 대신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가?

43

➔ 인간의 뇌만이 가진 힘이 있다.

- AI가 잘하는 것들—정보 수집, 요약, 패턴 인식
- AI가 절대 못 하는 것들—맥락, 감각, 연결, 질문
- 인간의 뇌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

2부.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을까?

-조선의 공부는 이미 완성된 뇌과학이었다.

5장. 조선의 공부는 왜 달랐는가?

50

➔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다.

-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사고였다.
- 읽기·말하기·쓰기의 연결 구조
- 수기치인 [修己治人] - 삶과 연결된 공부

6장. 일목십행 [一目十行] - 뇌가 이해하는 방식

55

➔ 전체를 먼저 보면 깊이 기억된다.

- 속독이 아니라 구조적 읽기
-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으로 들어간다.
- 왜 이 방식이 뇌에 맞는가?
- 속독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 함영 [含泳] - 책 속에 완전히 잠기다

7장. 낭독과 다국어 - 소리로 체득하는 공부

61

➔ 입으로 읽는 아이가 강해지는 이유

- 소리 내어 읽는 공부의 힘
- 구구단이 증명하는 것
- 낭독이 기억과 사고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유
- 낭독과 다국어 - 한글로 세계를 읽다.
- 기억은 몸이 체득한다 - 6년 후의 기적
- 입으로 읽는 아이가 강한 이유

8장. 택우문답 [擇友問答] - 질문하고 토론하는 공부

70

➔ 말하는 사람이 사고한다.

- 일방적 수업이 아닌 대화형 학습
- 하브루타보다 수백 년 앞선 우리 것 - 택우문답
- 역할 바꾸기 토론 - 뇌 신경망을 다시 설계하다.
- 말하는 사람이 사고한다.

9장. 과거시험은 왜 서술형이었는가?

76

➔ 논리를 키우는 공부가 AI 시대에 통한다.

- 하나의 질문으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구조

- 정답이 아닌 논리를 보는 시험
- 기업 채용은 이미 바뀌고 있다.

10장. 우리는 왜 이 공부를 잃어버렸는가?

81

➔ 1910년, 식민교육이 시작되었다.

- 식민지 교육의 구조
- 아학편이 증명하는 것-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 한글 - 세계 최고의 파닉스 도구
- 한글 말살-외국어 교육을 막아야 했던 진짜 이유
- 1910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 일본식 영어 문법의 110년 유산
- 이제 돌아가야 한다 - 소리가 먼저다.

3부. 뇌과학은 이미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 공부는 연결에서 완성된다.

11장. 신경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96

➔ 반복이 아니라 연결이 공부를 완성한다.

- 신경망이 촘촘해질수록 공부가 쉬워지는 이유
- 반복과 연결 - 뇌가 학습하는 방식
-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연결이다. - 조선이 이미 알고 있었다.

12장. 기억은 왜 출력에서 완성되는가?

100

➔ 읽어도 남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다.

- 읽고 또 읽는 공부가 남지 않는 이유
-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차이
- 꺼내야 비로소 기억이 된다. - 조선식 공부의 과학적 이유

13장. 작업기억과 이해의 한계

104

➔ 읽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왜 기억이 안 될까?

- 작업기억이란 무엇인가?
- 왜 방금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
- 신경망 통로를 넓히는 훈련
- 전체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 울곡이 이미 알았다.

14장. 뇌 상태가 공부를 결정한다

109

➡ 뇌가 준비되면 공부는 짧아도 깊어진다.

- 열심히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 오래 앉아 있는 공부의 함정
- 뇌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공부가 들어간다.
- 40분 공부로 8시간을 이기는 구조
- 멈추고, 꺼내고, 확인하라! - 서당이 먼저 알았다.

4부. AI가 대신할 수 없는 뇌의 힘

-질문하고, 읽고,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14장. 질문하는 뇌

118

➔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앞서간다.

- 정답을 찾는 사람 vs 질문을 만드는 사람
- 질문이 사고를 확장 시키는 이유
-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15장. 읽는 뇌

124

➔ 읽는 힘이 모든 공부를 바꾼다.

- 독서가 신경망을 확장하는 방식
- AI 시대에 독서가 더 중요한 이유
- 속독과 정독 - 진짜 읽기의 기준

16장. 쓰는 뇌

130

➔ 쓰는 순간, 사고가 완성된다.

- 쓰는 사람이 AI 시대에 강한 이유
- 글쓰기는 사고력이다.
-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는 방법

5부. 우리가 잃어버린 공부법

몸, 자연, 언어 - 가장 오래된 공부의 힘

18장. 실컷 뛰어놀아야 공부가 된다.

143

➔ 잘 노는 아이가 결국 공부도 잘한다.

- 공부 잘하는 아이는 왜 잘 노는가?
- 걸으면서 하는 공부, 움직이면서 하는 사고
- 전통 놀이가 가르쳐 준 것

19장. 자연은 최고의 교과서다.

148

➔ 경험한 아이의 뇌는 더 넓게 자란다.

- 금, 토, 일, 무조건 자연 속으로!